

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KR1200

한글 성명: 야스이 카온

공간은 장소가 아니라 사감이다
야스이 카온
친구와 같이 다니는 등하굣길, 혼자
외롭게 다니는 등하굣길. 같은 장소이지
만 다른 느낌을 받는다. 나는 '이 낯이
공간'이라고 생각한다. 공간을 정의할
때 가장 핵심은 사감이라고 생각한다.
똑같은 장소라도 등교와 같이 있는 지에
따라 전혀 다른 공간이 된다. 어느 때
는 즐거운 공간, 어느 때는 슬픈 공간
이 된다.
나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기
숙사 생활을 했다. 내가 살던 기숙사는
규칙이 엄하고 다른 사감들이 보면 거
기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물어볼 정
도였다. 나도 처음 기숙사에 입사했을
때는 당황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.
하지만 그런 심격한 규칙에는 기숙사들
운영하시는 분들의 깊은 뜻이 담겨져

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KR 1200

한글 성명: 야스이 카온

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우리 기숙사
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.
이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모두
갈짝 놀랐다. 나는 대학생 때까지 핸드
폰을 손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
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인지 몰랐다.
하지만 대학생이 되어 핸드폰을 갖고
다니게 되면서 지금은 핸드폰 없이 살
수 없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중고등학생
시절, 핸드폰이 없어도 잘 살고 있었다.
지금은 공용 컴퓨터나 테블릿이 있었
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
수 있었다. 외부에 나갈 때는 미리 준
비하면 불편함이 없었다. 내가 생각하기
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 나에게는
큰 도움이 되었다. 길을 잃어버렸을 때
사람에게 물어볼 줄 알게 되었고 친구
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 더
은근하게 맺을 수 있었다. 그 외에도
많은 규칙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 내

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KR1206

한글 성명: 야스이 카운

가 생각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었다. 또
 기숙사 행사도 많아서 학생들이 더러가
 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줬다. 코로나
 이전에는 미국에 수련회로 가기도 했는데
 그 경험이 정말 잊히지 못할 추억
 이 되었고 거기서 배운 것들이 지금도
 큰 힘이 되어 있다. 그래서 나에게 기
 숙사라는 공간은 힘든 일도 있지만 그
 것을 극복하면 행복한 공간이 된다. 내
 가 기숙사라는 공간을 정의하면 항상
 학생들을 직접 챙겨주시는 복원장님라
 사람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다. 그 분들
 에게 많이 존나기도 했고 나도 반감을
 가질 적도 한 두 번은 아니지만 결국
 그 분들을 학생들을 위하고 계신다는
 것을 알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
 다. 하지만 이번에 그 분들이 그만두시
 거나 인사 이동하게 되었다. 나는 너무
 슬펐다. 게다가 그 시기가 너무 불합리
 한 이유였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나고

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KR1200

한글 성명: 야스이카와

눈물을 참지 못했다. 그 분들이 인사
 이동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어떤 사람
 의 감정 때문이 나의 인생을 망치게
 될 것이다. 그 때 문득 생각났다. "라
 면 부원장님과 사람 선생님 이 이제 안
 계신다면 나는 기숙사를 어떻게 생각할
 까? 또 거기 에 불려 갈 것 일 까?" 나의
 결론 은 바로 나왔다. 또 다시 기숙사 에는
 안 갈 것이다. 대야하면 나에게 기숙사
 라는 공간 은 부원장님과 사람 선생님이 있
 기 때문이다. 그 분들이 안 계시는 기숙
 사 는 기숙사가 아니다. 전혀 다른 공간
 이 된다. 아무리 다음 오시는 분이 증
 은 하감이 라고 해도 나는 받아 들이지
 못할 것이다. 이제까지 그 분들이 쌓아
 주신 것 들 을 이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
 무너질 것이 눈앞에 보인다. 아직 그
 분 들 을 대신 할 사람이 없는데 떠나게
 되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.
 이 렇게 공간 은 장소 가 아니라 사람 으

